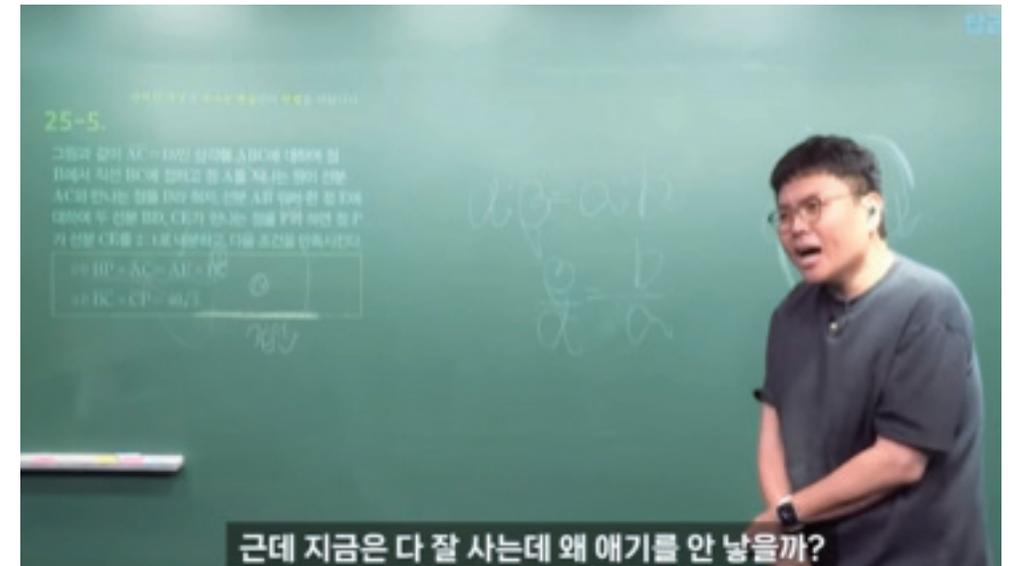


## SNS와 알고리즘에 지배당한 저출산 사회

**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저출산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이투스 대표 강사 정승제(출처=유튜브 '정승제 사생팬' 갈무리)

수학 '1타 강사' 정승제 씨가 저출산의 원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보여주기식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일침을 가한 일이 화제가 됐다. 정 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때는 오마카세(말김 차림)라는 단어가 없었다. 골프?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 우리나라에는 페라리가 한 대도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때는 다 못 살았는데 아기는 많이 낳았다. 지금은 다 잘 사는데 왜 얘기를 안 날을까”라며 “그게 인스타그램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또 “남들이 나보다 형편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며 “인스타그램 안에 들어있는 그들의 얼굴은 다 가식, 거짓이다. 보통 찍을 때만 웃고 끝나면

시무룩해진다”고 지적했다.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의 ‘보여주기식 문화’에 중독되면 나만 불행한 것 같고, 행복할 자신이 없어지는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은 것이다. 정씨는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을 믿지 말자. 인스타그램이 없던 시절이 최고의 시절이었다”고 확인했다. 그의 거침 없는 주장에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공상이지만 만약 한국이 망한다면 두 가지 요인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저출산 문제요, 또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다. 산업부에서 4년 동안 몸담으면서 이들 문제에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고민하며 관련 서적을 찾아 탐독하기도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협력해야 할 이슈로 최근 몇 년 새 탄소세, 탄소배출권, 배출권 거래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정책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만들어졌다. 탈탄소 확대 기조는 정부와 기업,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반면 저출산 현상은 한국이 당면한 현안이자,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낮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더 큰 문제는 이 순간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부에 있을 때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가 반려동물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대다수의 애견·애묘인들은 자기 반려동물을 애인이자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운다. 반려동물에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을 이용하려는 상술이 판을 치지만, 수백만 명에 달하는 반려동물 인구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다. 2023년 2월 말 고양이용 칫솔이 사람용보다 2배 비싸다는 모 일간지의 헤드라인이 그다지 낯설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2001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한



국제 강아지의 날(National Puppy Day) 개 도살장을 형상화한 컨테이너 부스 앞에서 한 동물권 단체 회원이 반려견을 안은 채 팻말을 들고 불법 개 도살 및 거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문화적 다양성과 상대주의라는 기본 개념도 탑재하지 못한 순진한 주장이라고 치부했다. 당시 여론도 10명 중 9명은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2022년 개 식용문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명 가운데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



반려견과 함께 가는 박람회(출처=연합뉴스)

회와 서울시 의회에서는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안이 발의됐다. 강산이 두 번 넘게 변하고도 남을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적 여론도 뒤바뀐 셈이다.

2023년 초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의 모 경제단체 고위 임원과의 술자리에서 저출산이 화두로 오른 적이 있다. 그는 출산은 커녕 결혼과 연애도 하지 않는 세대(世態)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 의회가 청년들에게 데이트 비용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농담 섞인 주장을 했다. 나는 정책적 차원에서 비현실적이고 부작

용도 큰 주장이라고 맞받으며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속하는 저출산 문제는 과거와 많이 달라진 반려동물 문화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내 주장의 요지는 반려동물세를 거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반려동물 숫자가 늘면서 개 물림 사고, 아파트 층간 소음이나 배설물 민원, 동물 학대와 유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물복지 선진국은 이미 반려동물 관련 세금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2006년 반려인이



모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출처=연합뉴스)

동물 한 마리당 10만원의 부담금을 내는 '반려동물 부담금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동물단체의 반발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반려동물 인구나 문화가 지금과는 매우 달랐고,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도 지금보다는 현저히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나는 반려동물세로 마련한 예산을 신혼부부의 다자녀 출산과 난임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면 분명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키우는 현 세태와 문화에도 분명 심리적 억제 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믿는다는 말에 그는 무릎을 '탁' 치며 공감했다. 내 주장은 국민제안에 올랐고, 정부는 연구용역 등의 검토에 나섰다.

2023년 4월 중순계 부서가 산업부에서 테크부로 바뀐 뒤 새 부서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생각도 조금 바뀌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려동물세보다 훨씬 시급한 것이 SNS 안전 기준 확립이라는 점을 말이다. SNS는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이지만, SNS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SNS에 올라온 타인의 일상과 나의 삶을 비교하며 우울감에 빠지는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카페인 우울증은 SNS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앞 글자를 따 만든 단어다. SNS에 노출된 타인의 모습을 자신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감에 빠지고, 과몰입으로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주요 특징인 중후군이다. 최근 미국 공중보건당국이 아이들의 SNS 사용을 중학교 뒤로 미루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적절한 SNS 사용 안전



저출산 PG(출처=연합뉴스)

기준을 마련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권고할 정도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대학에서도 SNS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을 느끼기 쉽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나 빼고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우울감에 젖은 사람이 연애와 결혼, 출산에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리 만무하다. 수학 1타 강사인 정승제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확산으로 급속하게 성장한 유튜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짧은 시간에 도파민(Dopamine, 각성 호르몬 증가를 유발해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신경전달물질)을 주는 영상이 범람하는 동시에,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일상과 생활 패턴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오롯이 나를 관찰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SNS와 OTT의 순기능도 있겠지만, 요즘 풍조를 보면 소통의 개념이 아니라 일방적인 과시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비현실적인 허영과 자극적인 콘텐츠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에 길들면 내가 아닌 외부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후 밀려오는 허무함을 극복할 전향적인 힘은 점점 약해진다. 부정적인 언설을 성장형 단어와 마인드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도 시간이 갈수록 사라진다. 나와 다른 사람,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내세우면서 성장한 SNS와 OTT가 역설적으로 나의 의식과 행동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SNS와 알고리즘에 지배당하면 나는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잃고, 정보의 조작과 허위성에 시달리며, 진정한 사회적 연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나 스스로를 독립적인 존재로서 인식함으로써 SNS와 알고리즘의 힘에 저항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만이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지키고, SNS의 함정에서 벗어나며, 궁극적으로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추구하는 길이다. 나만의 의식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사고와 판단력을 발달시켜야만 SNS와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정한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성찰과 자각이 당면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자 선결 조건이 아닐까. 🗣️

연합뉴스 홍국기 기자